

最近의 景氣動向과 下半期展望

金 迪 教

〈漢陽大學校 教授·經博〉

1. 最近의 景氣動向

8月初 經濟企劃院의 發表에 의하면 2~3個月後의 景氣를 豫告하는 景氣豫告指標가 6月中好況을 나타내는 1.6을 기록하고 있어 國內經濟는 全般的인 好況局面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事實을 立證이나 하듯이 最近 韓國銀行이 發表한 GNP의 潛定推計에 의하면 우리나라 經濟는 今年 上半期中 9.6%란 높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1/4分期中 9.3%의 成長을 보였던 것이 2/4分期에도 9.8%의 成長을 보임으로써 1/4分期에 이어 2/4分期에도 계속 好景氣가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上半期中 9.6%의 成長率은 지난해 上半期の 4.9%에 비하면 갑절이나 되는 높은 成長으로서 지난해의 高度成長時代를 回想하게 하는 고무적인 事實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注目할 만한 事實은 物價가 過去와는 달리 極히 安定된 狀態 아래서 高度成長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要因들이 이러한 高度成長을 可能케 하였으며 또 이러한 高度成長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먼저 上半期中의 高度成長을 可能케 한 要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昨年 5月の 어음파동 이후 급속히 늘어난 流動性의 增加를 중요한 要因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總通貨는 어음파동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82年 12月에는 前年

同期比 무려 30%나 늘어났고 今年에 들어와서는 增加速度가 상당히 완만해졌으나 6月까지만 하더라도 前年同期比 20% 以上 增加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流動性의 增加는 一定한 時差를 두고서 購買力化하기 때문에 景氣를 크게 자극하였음이 틀림없다. 今年에 들어오면서 奢侈性 消費需要가 늘어나고 建築景氣가 活潑히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流動性의 增加와 결코 無關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住宅을 위시한 民間建設投資가 去年에 취한 讓渡所得稅緩和와 金利引下에 따라 크게 늘어남으로써 景氣回復을 先導하였다는 것이다. 上半期中 建築許可面積이 지난해 同期보다 50%가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住居用은 58%, 商業用은 67%나 늘어났다. 國民所得計定으로 보더라도 上半期中 民間建設投資가 무려 36.7%나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建設投資는 聯關産業의 生産活動을 促進함으로써 全體景氣를 回復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째의 要因으로서는 消費需要의 급속한 增大를 들 수 있다. 流動性의 增大가 奢侈性消費를 助長한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物價安定에 의한 實質所得의 增加가 購買力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전반적인 消費需要를 增大시켜 준 決定的 要因으로 作用하였다고 할 수 있다. 自動車, 各種電子·電氣製品의 需要가 今年에 와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의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金利의 대폭적인 下落到 따른 貯蓄誘因의 減退도 消費를 자극하는

데 적지 않은 作用을 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어떻게 이러한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今年 上半期中 消費支出은 前年同期比 무려 7.7%나 늘어났는데 이는 昨年 上半期の 2.2%에 비하면 무려 3倍 以上이 늘어남으로써 全體成長을 主導하였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와 같은 活潑한 內需景氣와는 달리 輸出景氣는 아직도 不振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上半期中 商品輸出은 物量基準으로 보아도 7.4%의 增加에 그치고 있어 餘他部門에 비하면 매우 低調한 상태이다. 輸出이 不振한 데는 우선 世界經濟의 景氣가 아직도 본격적으로 回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各國에서의 保護貿易障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商品의 國際競爭力이 弱화된 데 基因하고 있는 것 같다.

世界經濟의 景氣가 不振한 가운데서도 美國經濟의 景氣回復이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어 美國에 대한 輸出伸張은 매우 높은 反面(5月末 現在 對美輸出은 前年同期比 23.5%나 增加하였다), 餘他地域에 대한 輸出은 中東地域을 제외하고는 모두 對前年比 減少하고 있는데 이는 世界經濟의 景氣回復이 擴散되지 못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

2. 景氣의 特徵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經濟는 오랫동안 沈滯에서 벗어나 景氣가 回復되고 있고 最近에 와서는 景氣가 全産業에 擴散됨으로써 好況局面에 進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의 好況은 몇 가지 側面에서 過去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最近景氣의 特徵은 內需主導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景氣 움직임은 海外的 要因 즉 援助, 外資 또는 輸出需要의 變化에 의하여 크게 左右되었던 것과는 다른 패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經濟가 그 規模面에서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가르킨다고 할 수 있는데 1982年 現在 우리나라 GNP는 660억弗, 1人當

GNP도 1,600弗에 이르고 있어 內需市場의 規模도 결코 작지가 않다. 이처럼 內需基盤이 커짐에 따라 景氣變動도 國民經濟의 內部的 要因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經濟의 輸出依存度가 아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輸出의 增大如何가 景氣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事實이나 內需의 役割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時間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그러할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政府든 企業이든 앞으로 景氣를 展望하거나 또 景氣對策을 세울 때 內需市場의 움직임을 예의 관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內需市場의 比重上昇은 輸出市場의 상대적인 弱화에도 그 原因이 있는 것은 두 말할 必要가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世界經濟는 今年에 와서 美國을 중심으로 하여 상당히 回復이 되고 있고 來年에도 回復勢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基本的으로는 低速成長軌道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輸出의 伸張을 크게 期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經濟環境의 惡化 때문에 內需市場은 그만큼 經濟活動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의 特徵은 消費需要의 增大가 景氣를 主導하고 있다는 것이다. 今年 上半기에 있어서의 급속한 消費支出의 增大는 昨年에 늘어난 流動性增大, 貯蓄誘因의 減退에 따른 消費誘因 및 物價安定에 따른 購買力 增大 등 複合的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나 如何든 消費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이것이 投資를 刺戟하는데 중요한 要因을 形成하였다는 것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現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消費需要의 變化가 景氣變動의 重要한 要因으로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景氣를 展望함에 있어서 消費者行態, 消費構造의 變化 등 消費支出에 대한 研究와 關心이 政府든 企業이든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의 特徵은 景氣의 上昇局面이 物價의 刺戟없이 進行되고 있다는 것이다. 生産活動이 비교적 活潑한데도 物價가 安定되고 있음은 그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다. 우선 海外原資材價格이 原油를 爲始하여 安定勢를 유지하고 있고 政

府의 低賃金, 低金利政策에 의하여 cost push 要因에 의한 物價上昇壓力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3년에 걸친 不況 때문에 稼動率이 낮아서 需要가 多少 늘어난다 하더라도 施設面에서의 隘路要因이 없는 것도 物價를 자극하지 않는 중요한 要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物價安定에 대해서는 景氣가 好況局面을 지속하는 限 不安感이 없지 않으나 政府의 緊縮政策이 強行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의 再現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下半期 展望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마디로 要約하면 最近의 景氣動向은 상대적인 輸出의 不振 속에서 內需部門의 好況에 의한 上昇局面을 보이고 있으며 內需中에서도 建築景氣와 消費需要의 增大에 基因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景氣展望은 어떠한가?

景氣回復은 일반적으로 볼 때 建築景氣나 消費支出과 같은 景氣의 先行指標에 의하여 先導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景氣도 일단은 본격적으로 回復段階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消費需要의 增大와 建築景氣의 活性化가 뚜렷한 投資需要나 輸出需要의 增大 없이 進行되고 있는데 일말의 不安感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景氣展望은 投資와 輸出이 얼마나 回復되느냐에 달려 있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消費需要 역시 物價가 계속 安定을 유지하는 限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豫想되나 國際

收支上の 壓力 때문에 政府가 制動을 強化할 것으로 보여 上半期와 같은 劃期的 增大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KDI의 豫測에 의하면 下半期中 實質消費支出은 4.8%가 늘어날 것으로 展望하고 있는데 이는 上半期の 7.7%에 비하면 상당히 鈍化되는 셈이다.

投資는 企業家の 投資 마인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豫測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消費가 늘어나면 稼動率이 높아지고 稼動率이 높아지면 投資需要가 喚起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下半期에는 設備投資가 다소 活潑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半導體, 컴퓨터, 機械 등 有望成長産業에 대한 投資는 상당히 活潑해질 것으로 보인다. 建設投資는 政府의 金融緊縮強化와 抑制措置에 의하여 下半期에는 상당히 沈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政府는 總通貨增加率을 年末까지 15%선에서 강력히 抑制코자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企業의 資金事情은 매우 빡빡하게 될 것이며 이는 企業의 投資意慾을 상당히 沮喪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따라서 83年度의 固定投資增加率은 82년과 비슷한 11~12% 水準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輸出은 上半期보다는 下半期에는 伸張率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서는 美國의 景氣回復이 豫想보다 빠르게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經濟는 1/4分期의 2.6%의 成長에 이어 2/4分期에는 8.7%란 기대 이상의 높은 成長率을 보였으며 下半期에도 대체로 이러한 상승세가 持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83年度 經濟展望

(單位: 增加率, %)

	1982			1983		
	上半期	下半期	年間	上半期	下半期	年間
實質 GNP	4.8	5.8	5.4	8.5	7.8	8.1
總消費	2.1	4.9	3.6	6.1	4.8	5.4
固定投資	7.1	15.3	11.5	14.5	9.6	11.8
商品輸出	4.4	1.2	2.8	7.7	12.1	10.0
商品輸入	-1.6	4.1	1.4	9.2	7.9	8.5

資料: 「KDI 分期別 經濟展望」(韓國開發研究院, 1983. 2/4)

같이 美國經濟의 景氣回復이 앞으로 定着될 것으로 믿어지는 理由로서는 그 동안 緊縮政策의 영향으로 物價가 今年에는 상당히 安定(消費者 物價가 3~4%)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所得稅減稅措置에 따라 消費需要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下半年에도 對美輸出展望은 밝다고 하겠다. 한편 그 동안 不振했던 餘他地域, 특히 歐洲地域에 대한 輸出도 世界經濟의 景氣擴散이 진전됨에 따라 上半期보다는 다소 好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今年度 輸出은 235억달러의 目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처럼 金額面에서는 輸出이 多少 不振하나 輸出單價의 下落 때문에 實物面에서는 10% 以上の 증대가 豫想되며 이는 경기회복에도 적지 않게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有利한 점이 있는가 하면 不利한 與件도 없지 않다. 世界經濟의 점진적인 回復속에서도 保護貿易主義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國際金利는 아직도 높은 水準에 머물고 있어 國際金融市場에서의 緊張高潮와 함께 景氣의 本格的인 回復에 制動을 걸고 있을 것을 결코 過少評價해서는 안될 것이다.

4. 結 語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년도 우리나라 經濟는 消費, 投資, 輸出面에서 扎实的 成長이 豫想되어 7~8%의 GNP 成長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GNP 成長이 지속된다는 것은 巨視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그만큼 企業의 環境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적 높은 成長도 그 內容面에서는 過去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過去에는 成長이 높은 物價上昇을 수반하여 왔기 때문에 企業은 價格上昇을 통하여 利潤을 增大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物價가 安定되는 限利潤은 生産費切下나 品質改善 등과 같은 技術革新을 통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政府의 政策도 成長優先이기 보다 安定優先이기 때문에 物價가 上昇한다면 成長을 희생해서라도 物價安定에 全力投球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國家基本政策의 方向이 安定爲主로 轉換되는 時代에 있어서의 企業의 戰略 역시 과거와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앞으로 企業의 經營戰略은 原價節減, 工程革新 및 新製品의 開發과 같은 技術革新에 최대의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政府는 企業의 技術開發을 위해 技術開發促進法을 制定하여 稅制나 資金面에서 강력히 支援할 計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는 앞으로 企業의 資金事情이 상당히 岌岌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政府는 年末까지의 總通貨增加率을 15% 水準까지 내려뜨릴 計劃을 하고 있어 通貨面에서의 緊縮이 더욱 強化될 것으로 보아 企業은 資金管理面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세심한 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政府가 緊縮財政을 밀고 나간다고 하여 무작정 돈줄을 막는 것은 아니겠으나 企業으로서의 新規事業의 設計나 既存工場의 擴張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有望戰略産業에 대한 投資나 技術開發과 관련된 施設投資 등 選別的인 投資에 局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政府는 貯蓄의 增大나 國際收支改善 등을 고려하여 國內消費를 抑制하는 政策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內需面에 制動을 가할 것으로 豫想된다.

셋째로 輸出은 上半期보다 下半年에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획기적인 伸張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美國을 제외한다면 다른 나라의 景氣回復은 매우 완만하고 先進國에 있어서의 保護貿易主義는 조금도 完化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景氣가 좋지 않을 때는 低所得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低價低質品目的 輸出은 어려워질 것이다.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品質의 高度化, 新製品의 開發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國內外經濟를 막론하고 量의 時代에서 質의 時代로 옮겨가는 커다란 構造的 轉換時期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신속히 適應하는 것이 企業成功의 關鍵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